

빛 나 라, 선 군 장 정 천 만 리 여 !

1 면 에서 계속

오늘도 우리 장군님 자주 위우시는 전선에서 만나자라는 그 말씀 바로 그렇게 수령님의 명령에서 힘있게 올려나오지 않았던가 피눈물속에 한해를 보낸 인민들에게 수령님의 전사, 수령님의 제자되어 우리 힘차게 일해나가자는 우리 장군님의 그 친절—

정녕, 그 친절 1960년대 총대전사들에게 우리 서로 돕고 힘을 합쳐 무장으로 수령님을 받들어나가자시킨 그날의 그 말씀과 어쩌면 일백백사통을 이루는것인가 어려울 때마다 먼저 인민군대를 찾고 인민군대와 심장의 피 나누시며 가장 시련에 찌던 고난의 행군시기 령장과 전사들사이에 오고간 편지와 친절서한은 그 얼마였던가

말하라, 우리 장군님 사랑하는 나의 병사들을 찾아 넘고넘은 신철령이여! 아즈러운 약전차동승소리로 울리며 오르오르신 백천한금이 오성칼날벼랑길이여! 길길이 날뛰는 파도를 넘어 그렇게 찾아가신 초도의 풍광길이여! 그렇게 단행하신 최전연반문점초소길이여!

사람들이여! 다시금 심장에 새겨져 여기에 우리 장군님 안개전 오성산에 지쳐내리는 차를 밀어가시며 오르셨던 그날, 그 저녁 그곳 부대장 참고합던 격정의 오열을 더친 불명어리같은 말이 있다

—장군님, 정말 대죄를 지었습니다 장군님 실수 걸 하나 특특히 달아놓지 못한 이놈이 무슨 부대장입니까...

—무슨 대죄까지야 되겠나 최고사령관이 아무렇게 이미 갈 길을 알려주었고 가겠나 울지 말라

—장군님! ... 일일 하지만 심장이 크고 팔이 길어야 돼 특히 최전연부대장은 손바닥이 넓어야 돼 그래야 전 전선을 한순에 걸어걸수 있어...

여기에 또 바다가 초소 힘찬 돌무지길을 헤쳐 병사들을 찾아가시는 장군님께 그곳 부대장 목메어 더친 격정의 목소리가 있어

아직 거기론 그 어느 무렵부대군도 가보지 못했다고 길이 너무 험해 가입수 없다고 격정할때 장군님 웃으시며 하신 말씀

—그분들이야 그런 길을 걷게 해서 되나 난 이런 길이 좋아

아, 그분들! ... 천만심장을 울리는 그의 말씀이여! 이는 옷간부들의 중대지도가 그 옛날 방방행차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

유람식, 걸발발이여! 되질 말라는 조용하나 엄한 질책 진정으로 병사들을 생각한다면 인민군대의 왕인 병사들을 위해선 지휘관들이 하인이 되라는 뜻 진정으로 승대를 도와주려거든 지휘관들의 신창이 닳고 두무릎이 터져야 한다는 뜻

그렇다! 머니면 최전연 무산령과 선조암초소여!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인적 드문 해안초소와 초소들이여! 누가 너의 초소들에 그렇게 뜨거운 사랑안고 찾고 또 찾아오셨더나

누가 허리치는 솜눈길을 헤쳐 먼 북방의 처녀병사들을 찾아가시던 그걸음으로 또다시 사랑하는 딸들이 보고싶어 직총구가 순간을 노리는 최전연녀성증대를 찾아가시었더나

누가 물결굴에 들어 차면 병사들이 여기에 어떤 피와 땀을 묻었는지 알수 없을것이라고

어제는 안면청년발진소 오늘은 또 최전발진소 석수 쏟아지는 캄강한 물결굴을 헤쳐가셨더나 어느 유원지를 찾으시였을 뎨

거 공사버려버미우에 당분간 나무를 심지 말라고 그래야 병사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인민의 유원지를 건설했는가를 느끼게 할수 있다고 하시더니

누가 무지개동굴보수공사장에서 한순간 차창너머 바라보시었던 그 병사들 10년세월이 다가오는 오늘까지 잊지 않으시고

몇번이고 못 잊어 추억하시며 오늘은 그들모두 빼집었더나 찾아 대학공부도 시키고 훌륭한 일군으로 키울데 대한 특별조치를 취해주시었더나

누가 사랑하는 초소의 딸들의 눈동자와 얼굴에 생긴 상처를 두고 남모르게 알고있는 불치의 병을 두고 친부모보다 더 가슴아파하시며 비행기를 띄워 외국치료를 보내주시고

어느해 12월엔 풍상으로 너병사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시고 너무도 기쁘시여 지방의 땅, 정권기관 책임일군들이 양력설정으로 병사들의 집에 모두 찾아가

배집없이 이 사진들을 전해주게 하라 비상명령을 내리셨더나 누가 중대병실난방문제를 그처럼 걱정하시며

《다박술난로》를 보내주시고도 다시 또 찾으시여선 방달기는 벽이 아니라 바다에 놓으면 고항침야래목처럼 잠자리가 더 뜨뜻해질수 있다고

아, 그분은 오직 한분 우리 장군님뿐이시더!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병사들이 있고 병사들의 연애속에 나의 행복이 있다시며 병사들을 위하여선

고난의 마지막해 1997》이란 글발을 보며 탄복했는데 여기 올림목표에 와선 《후대들을 위하여》라는 글발을 보게 되니

정말 감회가 깊다 그가 부대장을 할 때 병사들속에서 좋은 친구가 나왔다

아까 그가 없어 올림목표앞에서 사진을 찍자니 내 눈물이 나는것을 겨우 참았소

오늘 우리가 찍은 사진에 신대공동무 모습을 합성하여서라도 꼭 내곁에 세워주도록 하시오

아, 전사여 듣는거! 그대 정녕 넋이라도 살아있다면 항장 솟구쳐 이 폭포기슭으로 달려와 항상같은 명령의 축복을

그대 만날 때마다 정말 군인을 했다나 한가슴이 비좁도록 2중영웅훈장을 비롯하여

높은 국가수훈을 다 안겨주신 장군님 떠나갔을 때에는 《최고사령관과 전우관》에 그대 영생의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또다시 가시는 전선길마다에서 그대를 못 잊어 추억하시니 올림목표도 격정을 더치는가

평범한 군관의 안해들을 꿈에도 생각지 못한 평양고려호텔과 목관편환실장으로 불리

최상급의 배려를 베풀어주시고 부대도 떠나던 그날에는 물소 금수산기념공원광장에 나오시여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

장군님 후회려 군인가족들 목메어 흐느끼며 부른 그 감격의 노래

아버지라 부르니나 우리 장군님 어머니라 부르니나 우리 장군님 천만자식 보살피며 키워주신 어머니

이 세상 제일 친근한 김정일장군님 ...

물노니 세계 그 어느 군력사에 평강의 이념 사랑을 기록했더나!

우리 장군님 그 사랑, 그 믿음은 병사들과 군인가족들뿐 아닌 떠나간 전사들을 못 잊는 추억속에 끝없이 이어지거니

아, 그분들! ... 천만심장을 울리는 그의 말씀이여! 이는 옷간부들의 중대지도가 그 옛날 방방행차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

유람식, 걸발발이여! 되질 말라는 조용하나 엄한 질책 진정으로 병사들을 생각한다면 인민군대의 왕인 병사들을 위해선 지휘관들이 하인이 되라는 뜻

진정으로 승대를 도와주려거든 지휘관들의 신창이 닳고 두무릎이 터져야 한다는 뜻

그렇다! 머니면 최전연 무산령과 선조암초소여!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인적 드문 해안초소와 초소들이여! 누가 너의 초소들에

그렇게 뜨거운 사랑안고 찾고 또 찾아오셨더나

누가 허리치는 솜눈길을 헤쳐 먼 북방의 처녀병사들을 찾아가시던 그걸음으로 또다시 사랑하는 딸들이 보고싶어 직총구가 순간을 노리는 최전연녀성증대를 찾아가시었더나

아, 이 아름다운 명소에서 한순간 풍치를 즐기시면서도 떠나간 전사를 못 잊어, 그 공적을 못 잊어

뜨겁게 그를 추억하시는 장군님

—일일 할 땐 법감단 사람이었는데 정말 아까운 사람이 갔던말이야... 나는 지금도 때로

구월산유원지를 바라볼 때나 평양—향산관광도로를 지날 때마다 신대군의 모습을 그려보곤 하오

그는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부대를 지휘하여 구월산관광도로와 향산지구도로를 당의 의도에 맞게 훌륭히 건설하였으며

올림목표를 인민의 휴양지로 꾸리는 데서와 북남철길과 도로를 편철하는 공사에서도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가 지금 살아있다면 나의 오른팔이 되어 얼마나 큰일들을 해나가겠소

저것 보라, 내가 구월산폭포옹벽에 새긴 《미레를 위하여 그 무덤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가시는 병사들을 위한 최고사령관 우리 아버지 김정일장군님뿐이시거니

아, 전사여 듣는거! 그대 정녕 넋이라도 살아있다면 항장 솟구쳐 이 폭포기슭으로 달려와 항상같은 명령의 축복을

그대 만날 때마다 정말 군인을 했다나 한가슴이 비좁도록 2중영웅훈장을 비롯하여

높은 국가수훈을 다 안겨주신 장군님 떠나갔을 때에는 《최고사령관과 전우관》에 그대 영생의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또다시 가시는 전선길마다에서 그대를 못 잊어 추억하시니 올림목표도 격정을 더치는가

평범한 군관의 안해들을 꿈에도 생각지 못한 평양고려호텔과 목관편환실장으로 불리

최상급의 배려를 베풀어주시고 부대도 떠나던 그날에는 물소 금수산기념공원광장에 나오시여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

장군님 후회려 군인가족들 목메어 흐느끼며 부른 그 감격의 노래

아버지라 부르니나 우리 장군님 어머니라 부르니나 우리 장군님 천만자식 보살피며 키워주신 어머니

이 세상 제일 친근한 김정일장군님 ...

물노니 세계 그 어느 군력사에 평강의 이념 사랑을 기록했더나!

우리 장군님 그 사랑, 그 믿음은 병사들과 군인가족들뿐 아닌 떠나간 전사들을 못 잊는 추억속에 끝없이 이어지거니

아, 그분들! ... 천만심장을 울리는 그의 말씀이여! 이는 옷간부들의 중대지도가 그 옛날 방방행차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

유람식, 걸발발이여! 되질 말라는 조용하나 엄한 질책 진정으로 병사들을 생각한다면 인민군대의 왕인 병사들을 위해선 지휘관들이 하인이 되라는 뜻

진정으로 승대를 도와주려거든 지휘관들의 신창이 닳고 두무릎이 터져야 한다는 뜻

그렇다! 머니면 최전연 무산령과 선조암초소여!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인적 드문 해안초소와 초소들이여! 누가 너의 초소들에

그렇게 뜨거운 사랑안고 찾고 또 찾아오셨더나

누가 허리치는 솜눈길을 헤쳐 먼 북방의 처녀병사들을 찾아가시던 그걸음으로 또다시 사랑하는 딸들이 보고싶어 직총구가 순간을 노리는 최전연녀성증대를 찾아가시었더나

수령을 믿고 따르는 전사 향일의 날 가마를 메고

사람부작식대를 따라다니던 오늘의 김주현이 되라는 뜻

그렇다, 사람이 가는 한생의 길에 어찌 혼장과 평가만이 따르고 어찌 꽃추단만 펼쳐지랴

사람의 길이 중중첩첩 가로놓이고 달 못할 아픔과 환희로 몸부림치며 잠 못 드는 밤과 밤도 있었리라

히나, 그대여! 령도자에 대한 변심없는 충정의 한마음 금강석같이 빛나는 신념을

심장속에 더 깊이 간직하라 우리 특특히 보지 않았더나

어치의 신념을 간직한 사람 다시 대오에 돌아왔어도

영영 다시 대오에 돌아오지 못한것을

신념의 한길만을 가는 우리 혁명의 길은 준엄히 경고하고있다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을 잃고 나무가지에 총을 걸어놓고 마을에 내려오는

왕바버지의 지갑봉이 되지 말고 광명을 팔아, 혁명을 팔아

개인의 향락을 얻는 더러운 변절자 리총락, 립수산이 되지 말라!

사나운 풍랑에 표류되어 전구에 나갔던 우리의 병사들

어떻게 신념 지켜 다시 돌아왔고 더럽힐수 없는 전사의 향기를 지켜 무덤가 바다에 멋뻐한 한복속 던지거

어떻게 영웅전사들 자국의 한길을 웃으며 갔던가

전사를 발휘한 그 위훈보다 가슴속에 간직된 그 신념이 더 귀중해

우리 장군님 영생의 언덕에 높이 내세워주시고 영웅의 이름으로 불려주시는

그들의 모교, 그들의 고향마을 그들의 중대는 그 얼마나 많은가

조영호영웅중대 제독성영웅중대 김경중중학교 리철민중학교...

하기에 우리 장군님 전선시찰의 길에 먼저 연혁실을 찾으시며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신다

—리수복, 안영애를 비롯하여 전사영웅, 전후영웅들 모두 합쳐 206명이라...

정말 이 부대는 영웅부대입니다

—김일성정치대학에서 5명씩 공화국2중영웅과 75명씩의 공화국영웅,

27명씩의 로력영웅이 나온것은 자랑할만 한 일입니다

영웅들의 사진에 조속히도 있는데 어는 신념과 지조가 강한 녀성입니다

한껏 약동하는 저 대치 시련을 막치고 일떠서 내 조국의 최후한 전변을 두고

우리 장군님 전선길에 올리신 그 호방하고 담담 선언이 쟁쟁— 가슴에 메아리친다

—우리의 위성은 하늘을 날고 우리의 철강산이는 바다로 간다

—선군시대가 또 하나 최후한 풍경, 목화풍경을 펼쳐놓았소

—내가 미곡협동농장 가을풍경을 선군 10경이라고 했는데

오늘 대동강파수종합농장의 정경이야말로 선군 11경이라고 말할수 있소

—이것이 최원속도요 이것이 바로 우리 당과 인민이 누리는 부귀 영화이다

—조선은 세계에로 세계는 조선을 보라!

아, 우리 장군님 그리고 기쁨넘쳐 하신 말씀

이것이 총대를 앞세워 이룩한 조선의 원지개척이고 이것이 위대한 김정일시대 우리 선군조선에만이 있을수 있는 자랑스러운 현실이다

이 땅 어딜 가나 강성대국의 무릉도원으로 전변된

현대적인 닭공장, 메기공장, 돼지공장... 그 어디를 가보아도

사람들은 말하더라 우리 군대가 했소

삼일포특산물공장과 대동강타일공장을 가보아도

우리 군대가 했소 동해명승지에 솟아난 마천호텔과 푸른 숲 우거진

동해명승지에 가보아도 우리 군대가 했소

그래서 군대가 한번 변혁하면 만년언제 가 치솟고

군대가 한번 건설의 마치를 휘두르면 현대적공업기지들이 우적우적 일어서고

군대가 한번 소리치면 첨단기술의 요새가 단숨에 점령되니

정녕, 우리 군대야말로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아안은 애국의 창조자

불가능을 모르고 백가지, 천가지 그 무엇이든 맡고결하게 해놓는

만능의 힘을 지닌 행복의 개척자, 선구자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좋은가

우주를 날오는 우리의 위성과 지구강국의 힘인 핵시험의 성공 무적불패의 국방생세

조선의 신념과 슬기의 결정체인 주체철과 우리 식의 산소분리기

세계길지의 매강장을 자랑하는 마그네사이트와

우죽 돈이 그리웠으면 수령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시는

꿈까지 꾸었겠는가 나는 우리 인민들이

고생을 겪는것을 보면서도 앓을 내다보고 최첨단을 돌파하는데

있는 자금을 다 보내주었다

아, 그렇게 다져주신 우리의 국방력과 군력이여서

우리 장군님 하늘과 땅, 바다를 세차게 진동하며

위력한 대우경포들의 일제사격 불덩어리가

직진을 무섭게 들부시는

특해공군합동훈련의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실 때

한 일군 감시의 참문을 닫으며 하자

군엄히 하신 말씀이여!

—그냥 놔두라 저 소소리가 얼마나 좋은가

오허려 전선길의 괴로가 다 풀려나듯 같다

우리는 발소리보다 포소리를 더 즐겨 들어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다하였다고

멋뎠이 말할수 있소 우리의 선군위엄은 당의 령도따라

정확도로 영원히 승승장구할것이야

아, 우리 장군님 불변의 선군의지가 특특 맥박쳐오는

고귀한 그 말씀이여! 총대가 강하면

실사 당이 무너진다고 하여도

군대가 약하면 사회주의전위물도 고수할수 없고

당도 유지할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인민군대는 나의 생명이다

인민군대의 총창우에 평화도 있고 사회주의승리도 있다!

하여, 우리 장군님 중중첩첩 시련이 겹쌓일수록

정녕, 우리 장군님 아니시었다면 어떻게 오늘에 우리 살고

어떻게 최후한 레일을 가슴혀고 멋뎠이 바라볼수 있으랴

생각할수록 고마움에 젖어 멋뎠이고 그이제 감사의 큰절을

드리고드리며도 모자랄 천만군민의 마음이 아니더나

우리는 지금 들고있다

태양이 빛나는 어머니수령님의 환한 미소를 우리르며

다시 한번 힘있게 말하라

그날의 수령님 믿음에 찬 확신의 그 말씀은

—김정일시대에는 오늘날 영광스러운 시대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찬란하고 통일번영하는 시대로 될것입니다

오, 동서고급 그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고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지닐수 없는

비범특출한 정치적수완

주체의 명군술을 지니시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해 이끄시는분

천리해안의 선전지명

파학적인 전략술로 천하대적도 취락파락하시며

역경에서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만들어

천화위복을 창조해가시는분

우리는 아직 모른다

그런 희세의 걸출한 선군명장을

바로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받아안은

최상최대의 특전이며 행운이거니

다시 조직할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근본원천이 있는것 아니냐

아, 선군으로 추억깊은 50성상의 높은 평마루우에서

저 멀리 백두산을 바라보는 우리 가슴엔

선군정치는 자주통일실현의 확고한 담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때로부터 어느덧 50돌기의 년월이 새겨지고있다. 지금 해외의 온 겨레는 불세례의 선군정치를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통일번영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선군의 기치에 힘차게 전진해온 6.15 통일시대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고있다.

백송의 강위력한 선군정치가 있었기에 우리 민족은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하고 횡포한 방해책동속에서조차 추호의 동요없이 자주통일군을 줄기차게 다그쳐올 수 있었다. 6.15 통일시대는 명실공히 선군정치의 위발점이며 탄생하고 선군의 호연에 전진해온 선군정치의 빛나는 년대이다. 우리 민족은 6.15 통일시대를 활짝 열었으며 떠밀은 선군정치야말로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빛내어주는 투철한 반제국주의 정치,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고 평화와 통일을 안아오는 승고한 애국애주의 정치임을 제부보 뜨겁게 절감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이 추구하는 선군의 기치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에게 민족 자주익과 자존심, 민족적 긍지와 영예감을 높여주며 민족의 통일과 통상번영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위대한 민족적기치로 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제국주의 강권과 전횡이 그 어느때보다 약탈해지는 현실의 요구에 기초하여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시고 선군정치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주시고 민족자주위업의 밝은 전도를 펼쳐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해외의 온 겨레에게 조국독립,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그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적국 고구루투함으로써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선군정치는 조국통일운동이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셔며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고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전진선에 대한 지배야망을 실현하려는 내외반통일세력과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고 통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려는 전체 조선민족과의 투쟁을 대결시킨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은 언제나 험난하였지만 투척 지난 세기 90년대 통일운동에 조성된 정세는 매우 준엄하였다. 우리 인민이 반만년 민족사의 대국상을 당하고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절정에 달한것은 통일운동에 가로놓인 류태담은 시련이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며 조국통일위업을 새로운 양상으로 이끌어올릴 의지를 안시고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반공화국침략책동을 분쇄하고 통일운동을 전민족적범위로 확대발전시키시면서 조국통일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시였다. 통일운동이 거족적으로 확대되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단합의 기운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던 지난 2000년 6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진행하시고 우리 민족끼리를 근본으로 하는 북남공동선언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6.15 공동선언의 발표는 위대한 선군정치와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6.15 공동선언의 발표로 북남관계가 획기적발전의 길에 들어서고 그 기치에 자주통일시대는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

6.15 공동선언발효후 반세기이상 깊어졌던 협력과 지역이 하나로 이어져가고 북남사이의 패왕과 접촉이

활발해졌으며 민족적 화해와 협력사업이 광범하게 진행되고 전민족적인 통일행사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우리 민족은 선군의 보호속에서 외세와 미국노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며 화해와 협력, 단합과 통일여로의 걸음을 박박있게 내질어올 수 있었다. 선군정치가 열어준 넓은 길을 따라 6.15 통일시대는 민족분열사상 있어본적 없는 북남관계의 사면적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선군정치는 전민족적범위에서 조국통일의 주체적역량을 강화하고 온 민족을 굳게 단합시키고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다. 전체 조선민족이 자주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하나로 굳게 뭉칠 때 조국통일의 주체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

선군정치는 민족의 자주익을 드높여주고 민족단합을 실현시킴으로써 통일위업의 주체를 불태우고 있다. 다지고있다. 선군정치는 투철한 반제국주의 정치로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있다. 온 겨레는 선군정치의 위력과 생활력을 현실로 체험하면서 선군정치가 있는 한 외세의 그 어떤 반공일책동도 얼마든지 짓부실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것은 민족의 주체적임을 대한 자각과 믿음을 굳게 해 주었다. 선군의 위력으로 신심과 희망을 얻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반미자주,련북통일의 기운이 날로 높아지고있다.

선군정치는 승고한 애국애주의 정치이다. 여기에는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겨레의 운명을 걸사수호하려는 열렬한 민족의, 전진과 신앙, 소극과 계층, 파국의 차이에 관계없이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너그럽게 안아주는 뜨거운 동포애가 비껴있다. 애국애주의 선군정치는 매혹된 내외의 각계각층 겨레가 선군을 열렬히 지지하여주시고 사상과 계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조국통일운동에 자취없이 떨쳐나서고있다.

선군정치는 내외호전세력의 북침전쟁

도발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몽개며 평화와 통일의 앞길을 열어가고있다.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바라지 않는 미국과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고 북침전쟁을 도발하는 방법으로 조국통일위업을 가로막고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박하려고 획책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은 내외호전장들의 군사적도발을 선군의 위력으로 단호히 물리치고 평화와 자주통일위업실현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자체의 힘과 기술을 의거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 <광명성2>호의 성과적발사와 두차례의 핵시험성공은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박하려는 내외호전장들의 기도를 물거품으로 만들었으며 그들을 철물케 하였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은 최철정에 달하고있다. <천안>호침몰사건이라는 희세의 반공화국로박공을 꾸며낸 호전장들의 그릇 구실로 얼마전 방대한 병력과 최신전장장비들을 동원하여 조선동서해에서 북침을 노린 해상전쟁연습을 동을 벌려놓는데 이어 지금은 <을지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감행하면서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다.

그러나 미국과 괴뢰호전장들은 사나운 야망을 드러내고 어떻게리해서 우리에게 감히 덤부리지 못하고있다. 적대세력의 그 어떤 군사적도발도 무자비하게 짓부실 수 있는 선군의 기치에 마련된 우리 공화국의 강위력한 전쟁역제력이 두렵기때문이다.

현실은 선군정치야말로 자주통일위업의 승리의 기치이고 확고한 담보라는 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선군정치를 따르고 받들는데 자주통일위업의 승리가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위대한 선군정치가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의 명도따라 자주통일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어리석은 개꿈을 꾸지 말라

리명박역도가 <8.15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말발을 늘어놓는데 이어 괴뢰통일부가 그에 대한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서고있다. 며칠전 괴뢰통일부대변인, 부대변인이라는 자들은 잇달아나서서 저들이 <통일세>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것이라느니, 각계와의 협의를 거쳐 <국민적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니, <후속조치를 준비할 계획>이 어느나 하고 떠들어댔다. 말하자면 <통일세>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얻어 그것을 실시하겠다는것이다. 보수세당은 지금 우리에게 참을수 없는 도발을 거듭하고있다. 리명박역도의 <통일세>말발이 반민족적인 <세계통일>야망의 로골적인 발로라면 <통일부>패거리들의 망상은 그에 따른 본격적인 실천행동의 첫단계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8월 15일 리명박역도는 그 무슨 <경축사>라는데서 <통일>이 반드시 오니 <통일세>를 준비하자.>는 야망을 늘어놓았다. 역도의 <통일세>말발은 즉시진보세력들을 비롯한 각계의 강력한 항의와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지어 <한나라당>내부에서마저 <통일세>문제를 판관한 로골적인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것들이 <통일세>제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다, <후속조치>나 하고 수작질한것은 리명박역당이 민심에 도전하여 반민족적인 <세계통일>야망실현에 미쳐달리고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리명박역도의 <통일세>말발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금번사태>를 넘두에 둔것으로서 우리의 존엄과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특대형도발이며 북과 남의 우리 민족모두가 추호도 용납할수 없는 극악한 체제대결선언이다. 리명박역당은 지금껏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 무슨 <원칙요구>와 <기다리는 전략>에 매달리면서 우리와의 대화도 협력도 다 거부하였으며 줄곧 외세와 함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악랄하게 벌려왔다. 현실은 괴뢰들이 우리를 해치고 <자유민주주의제도의 통일>말상을 실현하기 위한 그 어떤 <금번사태>만을 꿈꾸어왔다는것을 말해준다. 역적패당이 미국상전들과 함께 <금번사태>나발을 뻗자마자 불어넣었던 그에 대한 립중이다. 이번엔 리명박이 <통일>이 반드시 온다.>고 수작질한것은 역도가 얼마나 허망하기 그지 없는 환상에 사로잡혀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다. 역도의 끝수에는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는 개꿈같은 <세계통일>야망만이 딱 들어차있다. 오죽했으면 남조선 각계 각역의 <통일세>말발에 대해 <공허한 말공방전>이라고 야유조소했겠는가. 지어 북과 남의 우리 겨레는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할것을 바라고있다. 그러나 리명박역당은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통일용계를 실현해보려고 미쳐달리고있다. 괴뢰들은 외세와 야합하여 련합해상훈련이니,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니 하는 북침전쟁연습수동으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면서 <세계통일>, 북침통일을 노린 위험한 책동에 서슴없이 매달리고있다. 바로 그것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리명박역당은 <통일세>라는 간판밑에 남조선인민들에게서 동족대결, 체제대결을 위한 엄청난 형세를 육아내려 하고있다. 이 얼마나 극악한 반역자, 대결미치광이인가.

리명박역당이 지금 양철같이 <통일세>니 뭐니 하며 그것을 여론화하여 민심을 속여넘기고 불순한 야망을 실현하려고 말하고있지만 그것은 허사뿐이다. 인민은 언제나 진리를 따른다. 6.15 통일시대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북남선인들의 기치밑에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는 길만이 진리이고 애국이라는것을 가르쳐주었다. 남조선인민들은 리명박역도가 들고나온 <통일세>제안의 반민족적본질을 토포히 알고있다.

역적무리들이 제아무리 저들의 흉악한 <세계통일>야망을 통일이라는 말로 감싸면서 소그랴수를 써도 남조선인민들은 그에 절대로 속아넘어가지 않을것이며 북남대결을 격화시켜서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민족전쟁행위에 반드시 준엄한 철수를 내릴것이다. 리명박역당이 <통일세>를 떠들어대는것은 가소롭기 그지없다. 호전장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무자비한 보복의 불벼락으로 짓부셔버릴 우리의 단호한 의지앞에 언제 명칭이 꺾이지 않을 없는 불안전 처지에 빠진 괴뢰들이 그 조계에 남을 남겨다보며 <통일세>를 운운하고있으니 이야말로 소가 웃다 푸메미더질듯 이 아닐수 없다.

리명박역당은 주체군은 <통일세>말발파위를 늘어놓기에 앞서 기울여제가는 제 정 운영에 대해서나 생각해보는것이 좋을것이다.

최 철 슌

조국해방 65돐에 즈음하여

기념행사 진행, 동포신문 <통일>이 특집

조국해방 65돐에 즈음하여 감차트까번강고통련과 변강조 선공민회회가 15일 변강의 엘리조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여기에는 감차트까번강고통련 위원장들을 비롯한 일군들과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행사장에 모셔져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초상화를 꽃바구니를 증정하였다.

이 <위대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조국해방 업적을 영원불멸하라>는 제목의 강연이 있었다.

강연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향일의 수성상상 온갖 풍상고초를 다 겪으셨다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외세에 의해 분열된 조국을 통일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혁명적은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도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해나갈 의지에 넘쳐있다고 하면서 모든 동포들이 삼천리강도우에 통일강성대국을 일떠세울 날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그는 호소하였다.

조국해방 65돐에 즈음하여 12일 유즈베끼스탄에서 발행되는 동포신문 <통일>이 특집하였다.

신문은 <의의깊은 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8월 15일은 일제식민지통치의 기반으로부터 해방된 조국의 력사적 중요한 계기로 되는 날이라고 밝혔다.

글은 일제식민지통치기간

조선인민은 헤아릴수 없는 인적, 물질적피해를 당하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가 짓밟히고 온 강도가 일본의 원로까지로 전락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뿐만아니라 일제에 의해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 자기의 말과 글, 민족성까지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하면서 슬픈 날이라 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피어린 항일대전을 조직하시어 간악한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었다고 했다.

그들은 해방후 조선은 세계가 찬탄하는 불세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전변되었다고 격찬하였다. 신문은 개선문사전을 실었다.

본사기자

통일인사 한상렬목사에 대한 극악무도한 탄압행위를 규탄하다

6.15 해외측위원회가 성명

친만관 정당하고 의로운 행동으로서 해외의 온 겨레가 이를 적극 지지하였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 <정권>은 그를 환영할 대신 수갑을 채워 체포하고 파괴적 속가를 강행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6.15 공동선언이행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의 화합과 조국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염원을 짓밟는 용납할수 없는 범죄행위로 확인하고 준엄히 규탄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리명박 <정권>의 파괴적탄압책동은 해외에서 날로 고조되는 남북공동선언지지의 목소리와 민족의 화해, 단합을 지향하는

의 화합과 조국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염원을 짓밟는 용납할수 없는 범죄행위로 확인하고 준엄히 규탄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리명박 <정권>의 파괴적탄압책동은 해외에서 날로 고조되는 남북공동선언지지의 목소리와 민족의 화해, 단합을 지향하는

계명의 일방을 억누르고 남녘땅에서 진보세력을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을 <리적단체>로 몰아 말살하며 심각한 <정권>위기에 시 벗어나보려는 최후불박이다. 리명박 <정권>은 한상렬목사에 대한 탄압을 견디지우고 그를 당장 석방해야 한다. 우리는 분별과 대결, 전쟁책동에 피는바에 이어 날뛰면서 6.15 공동선언고수, 리명을 위해 활동한 한상렬목사를 부당하게 처형하려는 남측당국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파란시키고 야말것이다.

평화를 해치는 침략자, 도발자들은 력사의 징벌을 면할수 없다

혁명적대고조로 전쟁광신자들의 침략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자

검덕광업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에서 쫓기모임 진행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전투적으로 일하게 생활하기 위한 쫓기모임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에서 계속 진행되고있다.

모임들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혁명의 수호부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이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장들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실 혁명적기성과 열렬의 투지를 안고 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적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강성대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노드레 전진하는 우리의 거센전진선을 누구도 막지 못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혁명적인정신으로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 종업원 쫓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미제호전장들과 리명박역적패당이 도발적인 련합해상훈련을 강행하는데 이어 또다시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는 합동군사연습을 발광적으로 벌려놓는데 대하여 준엄히 규탄하였다.

한 김충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종업원쫓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한순에는 총을, 다른 한순에는 마치를 역세계 들어쥐고 경제구조건설의 선봉에서 힘차게 달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온 민족을 련합화속에 몰아넣으려고 미쳐달려는 우리 인민의 백년숙적인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을 징벌하는 심정으로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릴 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받들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결합시키며 더 많은 전기기관차와 꺾차를 생산, 수리하여 철도수송부문에 보내줄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는 개성방직공장과 신천군 새날농장 쫓기모임에서도 힘차게 울려나왔다.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적들

이 군사적실동연습을 편이어 강행하는것은 우리에게 대한 로골적인 선전포화라고 언급하였다. 그들은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을 경제 철수를 내리는 심정으로 공격적이고 능력이 다산한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열의 호소하며 천과 달공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올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맡겨진 혁명적위업을 훌륭히 수행할데감으로써 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를 자랑한 성과로 맞이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공서림산사업소 종업원쫓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전쟁광신자들의 침략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며 대

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생산을 다그치고 운반수단의 증가등을 보장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통나무를 보내줄것이라고 말하였다.

현실의학대교 교직원, 학생들도 쫓기모임을 가지고 적들의 무모한 불장난소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누구나 군사적정적패당을 징벌하는 심정으로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릴 것이라

고 언급하였다. 쫓기모임들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백두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선군의 위력으로 우리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강성대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후진방들에 대한 민심이 판노

남조선호전장들은 미제침략군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북침전쟁연습수동들을 벌려놓음으로써 평화과피리, 전쟁광신자로서의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더욱 명백히 드러내보이고있다. 남조선 각계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장들의 북침전쟁연습수동들을 <북에 갈을 겨는 전쟁도발행위>, <북에 건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전쟁과 동족대결에 환장이 되어 북남관계를 최악의 국면에 돌리려고 하고있는 괴뢰파괴자들의 힘으로 반드시 짓몽개버리고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과 일본, 남조선괴뢰호전장들의 침략 <동맹>의 위협성을 폭로하고 남조선주민들을 비롯한 침략전쟁부력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도 힘차게 벌여지고있다.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은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 강행한 조선동해에서 군사회견과 집회, 시위 등을 벌리면서 호전장들의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을 단정규탄하였다. 이들은 초대형해상공모함을 비롯해 미국의 최신전쟁장비들을 동원하여 북침전쟁연습을 강화한것은 <천안>호침몰 사건을 비롯하여 남조선과 미국, 일본련합대를 완벽하게 추속하기 위한 매우 위험천만한 전쟁도발행위를 보여주는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남조선과 미국, 일본의 <동맹>은 평화를 파괴하는 전쟁광신자들의 <동맹>이라고 하면서 호시탐탐 독도강탈을 노리는 일본에 조선동해로 진출하는 길을 스스로 열어주고있는 리명박역당의 사대대국행위를 준엄히 단죄하였다.

후진방들에 대한 민심이 판노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은 미국과 그에 추종한 리명박역당의 반공화국대결책동, 침략 <동맹>강화를 강력히 명증히 위협하고있다고 판하며서 남조선주민을 철수를 비롯한 침략전쟁부력을 철수시키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남조선공요인들도 민족의 거리에 우에 전쟁의 파괴를 들의우려고 날뛰는 미국과 괴뢰호전장들을 준엄히 단죄규탄하였다. 남조선의 <기독교교조교회> 총회,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을 비롯한 여러 종교단체들은 역사회견과 회견발표회를 통하여 역적패당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조선반도평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종교인들은 <지금 이 시대가 <북진>조가 램부하던 과거의 시대로 돌아간것이다.>, <이대로 가면 6.25 같은 민족의 불행이 되풀이될수 있다.>고 개탄하면서 민족의 통일과 화해, 평화를 위한 투쟁에 앞장설것을 피력하였다. 남조선의 그리스도교단체들도 8월 12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리명박 <정권>이 집권한 후 북남관계가 파탄되고 통일의 앞길이 가막혔다고 규탄하면서 리명박 <정권>이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즉시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외세 등을 업고 북침전쟁연습수동에 매달리며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리명박역당을 쫓아버리고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려는 남조선 각계의 민심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김 현 철

북침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하라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16일 평명을 발표하여 호전장들이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평명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이남부터 시작됨에 대해 언급하고 미제와 호전장들이 <천안>호침몰사건을 구실로 북침전쟁연습을 더욱 확

북침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당국이 민족의 참화를 가져올 전쟁수동에 매여달릴것이라 아니라 남북대화와 협력을 기본으로 통일과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것이라고 평명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허위문서남조로 조선을 불법강점한 파렴치한 침략자

일제가 강도적인 방법으로 《한일합병조약》을 남조한 때로부터 한세기 가 흘렀다.

무엇 흐르는 세월은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많은것을 지워버리고 한다. 하지만 오랜 세월 하나의 피를 들고 한 강도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을 지구상에서 영영 없애버리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한 일제의 죄악은 천년, 만년이 흘러도 잊어질수 없는 만고죄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강점기 후 안무치한 강도행위였다는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그 때문에 처음부터 그 강점을 합법적이며 정당한것이라고 묘사하였지만 《합법》은 어디까지나 철저한 강도행위였다.》

《한일합병조약》은 일제가 조선을 병탄하기 위해 모든 강권을 발동하여 남조한 불법, 비법의 허위문서이다.

일제는 1905년의 《을사5조약》과 1907년의 《경미7조약》 남조를 통해 리조봉건국가의 외교권과 군사통수권, 사법권과 경찰권을 빼앗아들이고 사실상 이때 벌써 우리 나라를 그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외교권과 군사통수권, 사법권과 경찰권을 잃은 리조봉건국가 일본과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조약을 체결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1904년 일본법학자 마즈바라 가즈오는 《국제공법론》에서 국제조약은 체결국의 능력, 전권위임, 합의의 자유, 체결목적과 적법성, 비준조건이 충족되어야 성립되며 이 조건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되지 않으면 무효로 인정된다고 하였다.

일제는 《한일합병조약》을 남조하기에 앞서 수많은 침략무력을 조선에 끌어들이어 살벌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원래 다른 나라들에 그들의 강도적요구를 들이대기에 앞서 무력시위 등으로 강박방식에 국도의 공포조각과 불안감을

주는것은 침략자들이 쓰는 상투적인 수법이다.

하지만 일제와 같이 가장 파렴치하고 로골적인 방법으로 남의 나라 황궁까지 걸걸이 포위하고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찬탈하기 위해 피눈이 되어 미처남편 침략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1910년 5월 일제는 국약무도한 폭군인 룩군대신 테라우제를 조선 《통감》으로 임명하고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도록 하는 한편 조선을 병탄하기 위한 책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일본통치체제의 지시를 받은 테라우제는 1910년 7월 서울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일제척탄군과 헌병부대를 대대적으로 증강하는 동시에 전조선에 헌병대본소를 수풀처럼 배치하고 인천에 군함을 끌어들이는 등 살벌한 공포분위기를 고취하였다.

8월에 들어서면서 서울시내는 완전한 계엄상태에 있었으며 거리에는 30m간격으로 일제헌병대의 순시대가 돌아다녔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거리에 서서 잠간순안 이야기하는것도 단속대상이 되어 엄한 심문을 받자고 인민들이었다.

황궁과 리조봉건국가의 중요부서들은 일제헌병과 경찰들에 의해 이중삼중으로 포위되어있었다.

일제는 이처럼 총칼로 무시무시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상태에서 《한일합병조약》을 남조하는데 달려들었다.

일제는 리조봉건국가의 판리들에게 부단한 협박과 회유수단을 들이대는 방법으로 강도적인 《한일합병조약》을 남조해냈다.

1910년 8월 16일 테라우제는 대륙역적 리완용을 자기 집에 불러들여 그에게 《합병조약문》의 내용과 함께 일본의 조선식민지통치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그 내용은 일제의 조선 《합병》후 황제의 대우 및 생활보장문제, 리조봉건국가 판리들의 처리에 관한 문제 등이 기본이었다.

인민들에게는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지만 친일파들에게는 부리와

영화를 준다는 내용으로 엮어진 《합병조약문》을 대륙역적 리완용이 반대할리 없었다.

한편 일제는 《한일합병조약문》을 반대하는 조선판리들에게 대해서는 《단단히 계산》할것이라고 오금을 박았다.

이제는 《합병조약》을 남조해도 무방하다고 라산한 일제는 순종황제에게 대륙역적 리완용을 저들이 미리 작성하여 놓은 《조약》체결의 전건대표로 임명할데 대한 《전권위임장》을 제시하면서 비준을 요구해나갔다.

황궁에서 그지없는 일제는 리조봉건국가의 최고통치자인 순종황제에게 마땅히 작성하여야 할 《전권위임장》을 제때대로 조작하고 비준을 강요함으로써 강제적인 방법으로라도 기어이 《조약》을 남조하려는 저들의 남조강요적인 속성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일제는 8월 22일 친일대륙역적들과 아합하여 순종황제로부터 《전권위임장》에 대한 비준을 강제로 받아낸 다음 《한일합병조약》을 순식간에 남조하였다.

《만국공법》 제406장에는 조약의 마지막항제였던 순종은 립종직전에 한 유조(일종의 유서)에서 《지난날의 《한일합병》 인준은 강권(일제를 가리킴)이 역신의 무리(리완용 등을 가리킴)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선포한것으로서 내가 한바가 아니다.》, 《《조약체결》 당시 일제는 나를 유혹하고 협박했다.》라고 폭로하였다.

당시에 널리 적용되던 《만국공법》 제409장에는 《만일 다른 사람의 협박을 받아 자유가 없이 한것이라면 그 조약은 다 폐지할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1969년에 유엔국제법위원회에서 채택된 원협약에도 조약체결이 《협박에 의한 강제의 결과에 수행된것인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효력도 가지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일제가 조작하고 사력을 총동원하여 황궁을 침략하고

국가대표자에 대한 군사적강박으로 남조한 《한일합병조약》이 조약체결에 관한 초보적인 국제법적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불법, 비법의 허위문서라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일제가 남조한 《한일합병조약》은 리조봉건국가의 최고통치자인 황제의 비준을 받지 못한 협박문서이다.

《한일합병조약》 제8조에는 본 《조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밝혀져있다. 이것은 《조약》이 공포를 거쳐야 효력을 가질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1910년 8월 29일에 공포된 《병합》을 알리는 순종황제의 《칙유문》에는 행정적결재에만 사용하는 서신체적격장(어필본 황제의 서명도 국제도 없다. 이와 반면에 같은 날에 공포된 일본 왕의 《조칙문》에는 국새와 함께 서명이 찍혀져있다. 이처럼 형식과 내용이 상반되는것은 《한일합병》이 《순종황제의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일본의 주장이 세말간 거짓이며 《한일합병조약》이 야말로 국제법상 무효이라는것을 여실히 입증하여준다.

《만국공법》 제406장에는 조약의 《반드시 국왕의 승인》이 있어야 실행할수 있으며 국왕이 《비준하지 않으면 곧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되어있다.

사실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최근 년간 일본법학자들은 《한일합병조약》이 《조선인의 선택이었다.》느니, 《한정된 절차를 밟은것이었다.》느니 하며 조약이 옳고 《조약》에 합법성을 부여해보려고 무언을 애쓰고 있다. 이것은 일제에 의해 수십년간에 걸쳐 피눈물나는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한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국제법과 인류평화에 대한 우롱이다.

일제가 남조한 《한일합병조약》은 그 내용에 있어서 가장 강도적이고 파렴치하며 황로한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뿐 아니라 세계인민들의 격분을 자아내는 력사에 전무후무한 허위문서이다.

《한일합병조약》 제1조에 조선왕제는 《정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에 《양여》한다. 제2조에는 조선을 《한친히 일본에 병합할것을 승인한다.》고 자초박았다. 이처럼 우리 인민의 자주성과 민족적존엄을 마구 짓밟는 남조강요적요구를 누가 순순히 받아들일수 있겠는가.

《한일합병조약》은 철두철미 일제의 강권과 사기협박, 그에 아부한 리완용과 같은 친일파대륙역적들에 의해 남조된 불법, 비법의 허위문서, 민중이상에 불과하다.

일제는 이 강도적인 《조약》을 남조한 후 그것이 우리 인민과 세계에 알려져 항의와 규탄을 받을것이 두려워 국비에 불렀다가 한주일후에야 공포하였다.

일제야말로 우리 나라에 대한 파렴치한 식민지노예를 실시하기 위해 국제법과 국제관계규범, 원칙은 안중에 두지 않고 조약체결을 마구 남조하여 우리 나라를 비법정권 회색의 가장 악독한 침략자이다.

일제의 남조강도적인 조선병탄책동과 가혹한 식민지노예정치를 말미암아 우리 인민은 근 반세기동안이나 이루어져야 할 자유와 독립, 회생을 강요당하였으며 우리 나라는 현대문명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일제가 패망한지도 65년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 일제의 범죄행위에 대해 성근하게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을 더욱 격증시키고있다.

우리 인민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일제의 죄악을 잊지 않을것이며 변덕속적 일본과 반드시 결산하고야말것이다.

일본은 우리 인민의 의지를 독바로 알고 하루빨리 범죄적과거를 깨끗이 청산하여야 한다. 이것은 일본인의 역사적책임이고 법칙. 도덕적의무인 동시에 시대적요구이다.

서 남 일

세계는 조선의 기적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였다.

백두산림명에서 탄생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백두의 정기를 지니시고 조국과 민족앞에 쌓아올린 김일성동지의 업적을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 나가신다.

이 나라 신문 《라보치-크레스찬스카야 브라우다》 제8호도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동상사진을 모시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편집하였다.

파키스탄신문 《피크 타임》 11일부는 《조선해방의 은인 김일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1932년 4월 25일 김일성동지께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였다.

반일인민유격대는 세계 《유일초대국》의 강경에 초강경으로 맞서나가는 자주의 성생인 사회주의조선의 기둥으로서 무적의 강군으로 위용 떨치고있는 조선인민군의 전신이다.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은 당시 세계를 제패하려던 일본제국주의와의 판각리 대결전이었다.

남참까지 무장한 강적과 국가적 후방도, 정구군의 지원도 없이 맞서 싸워 승리를 안아오신 김일성, 그것은 실로 전설적영웅, 천재적군사전략가이셨다.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조선은 해방되었다.

조선인민을 망국노의 운명에서 구원하시고 식민지인민해방투쟁의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하신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현대조선사와 더불어 세계민족해방투쟁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여러 나라 신문들 특집, 글 게재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본보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담화,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담화, 여러 나라 신문, 통신이 보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담화,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담화, 여러 나라 신문, 통신이 보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 《이미 선포한대로 무자비한 대항의 철추를 내리게 될것이다》를 여러 나라 신문이 보도하였다.

리비아신문 《앗 샬스》 7일부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하여 미국과 남조선의 계속되는 도발행위들에 대해 무자비한 대응을 선언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대변인은 미국과 남조선의 《출시 프리덤 가디언》련합훈련을 비롯한 전쟁연습소동은 공화국에 대한 본격적인 군사적침공을 노린 실체적인 행동 단계이라고 개탄했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호전발상을 벌리는 무모한 전쟁도발소동에 놀라지 않을것이며 미국과 남조선에 무자비한 대응의 철추를 내리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조선의 군사대응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견어보지 못한 가장 호전 정벌이라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대변인이 미국의 오바마행정부가 반공화국도립일 살해동을 당장 견어치울것을 요구하였으며 남조선의 리명박 역적제당이 조만간 사대매국노로서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똑똑히 알게 될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렇게 전하였다.

라이언 《방코포스트》, 이란신문 《이란 뉴스》, 에티오피아신문 《데일리 모니터》도 16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담화를 보도하였다.

우리 나라 외무성대변인이 남조선에서 《출시 프리덤 가디언》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사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담화 18일과 19일 중국과 로씨야의 통신, 신문이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반도의 긴장국화에 대해 립계점이

있으며 조선을 자기의것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갖추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대변인은 미국과 남조선이 한달도 못되는 사이에 전쟁연습들을 벌이며 강행하고있는것은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도발에 불을 달려는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발이라고 하면서 시 전정연습소동들은 정전협정에 대한 위반이며 2010년 7월 9일부 유엔안전보장사회 회의의 결정이후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국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전히 무시한데 대해 대변인은 미국이야말로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장본인이라고 략인하고 조선을 대화에도 전정에도 다 준비되어있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의 《중국청년보》, 로씨야의 이터르-타스통신도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여러 나라에서 독립절 기념

▲인도네시아에서 17일 독립 65돐을 기념하였다. 이날 수도에서 대통령 쉐실로 발발 유도요호의 참가밑에 국가계양식이 진행되었다.

이에 앞서 16일 독립절을 즈음하여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대통령은 정부가 다 많은 일자리를 마련하고 빈곤들을 낮추며 국가의 통일과 단합, 사회적회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자취적인 대외정책을 계속 전지하며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민족의 리익을 고수해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몽고에서 15일 독립 50돐을 경축하였다. 이날 수도에서 대통령 데니 쉐우-네즈의 참가밑에 열병식과 군중시위가 진행되었다. 열병식과 군중시위에는 각 군중, 병종 부대인원과 1만여명의 군인이 참가하였다. 또한 예술공연, 경축행위 등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다.

이에 앞서 13일 대통령은 전국에 보낸 방송연설에서 독립 후 지난 50년동안 사회주의에서 이룩된 성과에 대해 언급하고 모두가 단결하여 미래를 향해 전진해나가고자 호소하였다.

정치적 단합을 이룩할데 대해 강조

짐바브웨대통령 로버트 지. 무가베가 9일 영웅의 날 기념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전체 인민이 단결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지난 10년간 정치적

반목과 대립으로 나라의 사회적경제발전이 지장을 받는데 대해 언급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적대감을 버리고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나라들이 교류활동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대륙나라들사이의 협조강화를 호소

말라위대통령 병구와 부라리가 16일 남아아프리카개발공동체 수뇌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대륙나라들사이의 협조를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아프리카나라들앞에는 정보기술을 발전시키고 식량을 자급자족하며 어린이와 산모들의

대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소개

10일 로씨야의 이터르-타스통신이 대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소개하였다.

통신은 기나스체기속에 등록된 대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조선인민군의인민공화국의 최고상인 김일성상을 수여받았다고 하면서 작품이

판람자들의 온정을 사로잡고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작품의 《명함장》이라고 할수 있는 배경과 경기장에 펼쳐지는 방대한 서사적특색들을 통해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에 대하여 더 잘 알수 있게

본사기자

로 씨 야 통 신

대해 밝혔다.

일자리 조성

메히코에서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56만 5 000개의

【조선중앙통신】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학생전교육발전조치

중국 강성에서 학생전교육발전에 힘을 쏟고있다. 성에서는 2015년까지 도시와 농촌들에서 학생전교육을 실시하여 거의 모든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 공부할수 있게 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의 교육조건을 개선하고 교양연양사업을 강화하게 된다.

국내총생산 성장

베루에서 6월에 국내총생산이 11.92% 성장하였다. 이것은 4월에 비해 2.66% 더 늘어났다.

16일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주간 다 의 도시

규탄배격받는 미국

로씨야외무성의 한 판리가 최근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비난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최근 미국무성이 그 무슨 《보고서》라는것을 로씨야를 무기부재 및 전파장비, 군축분야에서의 합의의 위반한 나라들속에 포함시킨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무근거한것으로 략인하였다.

그는 이 보고서가 정확한 사실자도 없고 편견적인 평가와 구태의연한 불만을 제기하였다고 폭로, 단파하였다.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의

대외사업담당 교문 알리 아르바트 벨라야티가 9일 한 회견에서 미국의 위협책동을 강력히 배격하였다.

최근 미합중국본부의 장미 미국은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고 공공연히 떠벌인것과 관련하여 그는 어떤 위협도 이란의 발전을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미국이 이란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한갖 몽상에 지나지 않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베네수엘라혁명사회의당 지도부성원 다리오 비바스가 최근 미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미국의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의 완전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정부들을 전복하려고 획책하면서 지역에서 새로운 분쟁을 야기시키고있는데 대해 단파하였다.

그는 통일사회의당 성원들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대이란제재가 과연 성공할수 있겠는가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6월 9일 유엔안전보장사회가 이란에 대한 네번제 재제를 승인하였다. 미국이 추동할 것이 이후 미국은 일방적으로 이란에 단독제재를 가할수 있는 국내법을 만들었다. 미국외무성 상하원들이 통과시키고 미국집권자가 수포하여 효력이 발생된 대이란제재법은 이란이슬람교혁명군대를 비롯한 이란의 핵심기관들과 거래하는 외국은행들의 미국금융체계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미공화당소속 국회의원 의원 매킨은 이란과 거래하고있는 외국회사들은 《이란과 거래했는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호를 쳤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 법에 기초한 미국의 제재가 유엔의 제재를 훨씬 뛰어넘는 매우 가혹한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지금 미국은 이란과 경제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다른 나라들을 회유하고 압박해나가고 있다. 서방나라들을 비롯한 적지 않은 나라들이 미국의 대이란제재책동에 동조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미국의 대이란제재가 효과를 나타내지는가 하는 의문이 커지고있다.

이런 제재가 이란경제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것으로 본다고 말하였다.

세계 여론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이란의 실재가능성으로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회유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적극적인 경제협력대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는것을 꿰뚫고있다.

지난 6일 중국국무원 부총리 리우강이 중국을 방문한 이란인유상을 만났다. 리우강은 이란인유상에 중국이 현재 추진중이며 이란과의 협조항목들이 순조롭게 실시되도록 확실히 추진시켜나감으로써 쌍방사익의 실용적협조를 심화시키고 두 나라 관계가 계속 발전하도록 추동할것이라는것을 강조하였다. 이란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은 이란에 여러 개의 실용적협조공장을 건설해줄것을 비롯하여 에너지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브라질, 튀르키예 등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비롯하여 서방나라들이 뒤따르고 있는 판적이 이란과 계속 경제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을 공약하고 있다. 지난 7월 중순에 이란인유상은 로씨야에 가서 여러가지 원유계약을 맺고 돌아왔다.

몇년전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제제재의 후파로 미국에서 수출이 180억-190억 US\$ 줄어들고 2.5만명이 일자리를 잃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유엔-미국기밀기밀기구 위원장은 《경제제재조치가 실시될 때마다 큰 손해를 보는것은 미국회사들과 미국인노동자들이다.》라고 개탄했다.

제재조치는 시대착오적인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국제관계에서 공인된 자주, 평등의 원칙에 저촉된다. 모든 나라와 민족은 다같이 국제사회의 동등한 성원이다. 그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에 일방적인 강요를 할수 없다. 특정한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에 제재를 가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일삼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미국의 경제제재는 평권추진용 평화와 완화에 나가는 전반적국제정세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운명성으로 하여 미국의 경제제재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완강한 저항과 역공에 부딪혔듯이 국제적인 합의규탄속에서 좌절과 실패를 면치 못할것이다.

이란인민은 반제재투쟁성이 강한 민족이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가져올 후파에 대하여 명심하고 바로 처신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리 경 수

편집위원회

중국인 산동성에서 최근 폭우로 큰물피해를 입었다. 큰물로 13일현재 20만 4 500명의 주민들이 긴급소송되었으며 54만 7 100ha 면적의 논작물이 씻겨 버렸다. 피해액은 351만 8 000명, 경제적손실액은 23억 7 700만RMB. Y(원)에 달한다.

한편 사천성에서 12일부터 14일까지 산사태가 발생하여 11명이 사망하고 60명이 행방불명되었다.

중경시에서는 7월 하순부터 계속된 호우현상으로 13일까지 28만 5000명의 주민들이 물부족난을 겪고있다.

해지지역들에서 구제조치가 취해지고있다.

모리타니의 동부와 중부지역에서 최근 며칠동안 무더기

비가 내려 피해를 입었다. 무더기비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많은 집들이 무너졌다. 누락된 것으로는 500세대의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소개되었다.

파키스탄에서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큰물로 16일 현재 사망자수가 1 600여명으로 늘어났으며 70만 여명의 살림집이 파괴되었다. 피해지역들에서 구제사업이 계속 진행되고있다.

필리핀의 마진다나오주에서 최근 며칠째 계속 내린 무더기비로 큰물피해를 입었다. 큰물로 17일 현재 낮은 지대에 있는 마을들이 물에 잠겼으며 1만 4 000세대가 피해를 입었다.

【조선중앙통신】

계속 녹아나는 미군복 나토군

이라크에서 미강점군이 이라크 항쟁세력의 군사작전에 의해 계속 녹아나고있다.

15일 디알라주에서 항쟁세력의 공격으로 미군 1명이 또 희생된적이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반테로전》에 돌아오는 미군이 이라크 항쟁세력의 공격으로 계속 녹아나고있다.

5일 미국방성은 아프가니스탄전쟁개시 이래 지금까지 이라크에서 죽은 미군수가 1 113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17일이 나라 동부와 서부지역에서 항쟁세력의 폭탄공격으로 3명의 나토군병사도 죽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7-01151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번호 취송금인 제3호) 전 화: 교관 326-2312, 편집국 326-1328, 편집실 326-5428, 당직서야과부 326-5528, 당직실부 331-4528, 사회주요과부 321-3528, 326-0712, 특약기자부 321-4328, 편집위원회